

구미케미칼, 염소 누출 진료비 부담

보험료로 피해주민 지원하고 부족액은 자체 충당 ... 총 800만원 추산

3월5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염소(Chloride)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와 주민의 진료비를 구미케미칼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구미케미칼 박영산 사장은 3월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미케미칼에서 사고가 난 만큼 보험료로 주민 진료비를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주민이나 근로자는 구미케미칼 직원 서모씨를 포함해 모두 220명을 넘어섰다. 1명당 4만원의 진료비가 들었다고 하면 진료비는 모두 800여만원에 달한다.

구미시 박세범 과학경제과장은 “사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 때와 성격이 다르다”며 “사고 가해자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2>